

광주북구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재)광주북구 장학회는 지난 10일 북구청에서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북구장학회 제공>

나주병원, 지적장애인 시·서·화 전시회



국립나주병원(병원장 정효성)은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남광주지하철역 문화공간에서 '지적장애인 시·서·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립나주병원 제공>



‘보해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 열려

보해양조(대표 유철근)는 지난 10일 광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유교자와 선행청소년들을 격려하는 '2014 보해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보해양조(주)와 광주지방검찰청이 후원하는 '보해청소년선도대상'은 평소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유망자들과 사회의 귀감이 될 선행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표창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천지건설(주)윤정열 회장이 대상에 선정돼 300만원의 상금과 표창패를 받았으며 박병용(서부경찰서)씨 등 9명이 본상과 각가 상금 100만원, 장려상 6명이 각각 상금 50만원을 수여 받았다.

보해양조(주)는 지난 1984년부터 28회째 이 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기업인 (주)청해에탄올에서 상금 등 비용 전액을 후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방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피길연 〃 사무처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신동천(여수LG화학 근무)·김희복씨 차남 형성군 박봉순(전남도 F1대회 지원 담당관)·김미향씨 장녀 상령양=13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마리아주웨딩스퀘어(구 상록회관) 3층 배라채움.

▲최옥길(목포시 배구협회 상임부회장)·육복실씨 차남 성혁(신용보증기금 본사 신용보증부)군 백도인(백산건설 대표이사)·김영숙씨 장녀 형미(조선대 입학처)양=20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김창현(전 광주교대 총장)·문성례씨 차남 치형군 김선희(한국미술협회 나주 지부장)·김성임씨 장녀 슬기양=13일(토) 오후 5시 광주 라복웨딩홀 3층 the하우스.

▲송문호·이춘화씨 장남 현량(미래창조과학부)군 이평로(국성음장)·양미자(국성군청)씨 장녀 보라미(국립국어원)양=13일(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동창회

▲광주상고 24회 송년의 밤(회장 허봉)=12일(금) 오후 7시 광주 프라도호텔 3층.

▲광주 송의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회장 최경채)=15일(월) 오후 7시 광주 북구 매곡동 컨벤션웨딩홀.

종친회

▲진주 강씨 나주시종친회(회장 강영석)=17일(수) 오전 11시 리도예식장 10-3903-2153.

향우회

▲재광 보성향우회(회장 박요주) 정기총회=12일(금) 오후 6시 광주KT빌딩(동구정 옆)4층 062-222-0728.

알림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

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지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지기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모집

▲디자인 솜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숍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조국 교수 초청 강연

4대강·자원의외교에 혈세 쓰느라 복지비 부족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관조 대신 관심 가져야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가 주관한 '2014 치유의 인문학'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연사로 초청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50) 교수는 9일, '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라는 주제로 광주시민을 만났다. 대학생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년층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강연장에는 인파가 몰렸다. 조 교수는 강연장에 들어서자 청중은 함한 박수를 보냈다. 180cm가 넘는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중저음의 목소리까지. 배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모습의 조 교수는 무대에 올라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학인(學人). 조 교수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스스로는 정치인도, 시민운동가도, 철학자도, 구도자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세상 변화를 위해 역할과 소임을 기꺼이 하려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그동안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을 펴내며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 관심을 유지했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민영화 등 우리 사회 만연한 갈등의 뿌리가 지난 1997년 IMF때부터 시작됐음을 지적했다. 극심한 양극화가 정치적 의도를 지닌 집단이 퍼트리는

루머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란 점을 역설하며 '관조'가 아닌 '관심'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가 양극화를 넘어서는 키워드가 될 것이며 정치민주화처럼 국민 참여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가 낸 돈입니다. 4대강에 보를 쌓느라 사용된 돈부터 자원의외교에 쓰인 수십조 원이 전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복지비용까지 부족하게 됐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국민복지에 쓸 돈을 녹조로 뒤덮인 4대강 '녹차라떼'에 쏟아 붓고 말았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당장 우리 삶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는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공부란 자신이 무엇에 들뜨고 분노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자신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은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때 대선 후보 모두가 목청껏 외쳤지만 결국 흐지부지 된 경제민주화. 그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당부했다.

“정치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2014치유의 인문학' 마지막 강연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제민주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 제공>

피와 땀을 흘렸습다. 정부를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문을 당하는 세상에서 민주화는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포기했다면 우리 사회가 누리는 자유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선거에 무관심하고 정치인을 욕하기만 해서는 양극화란 강은 더 깊고 넓어질지 모릅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차례입니다. 정치민주화를 위해 투표를 행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독재권이라도 하나된 대중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도 덧붙였다.

“울은 주장을 펼쳐도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때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중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에 나서고,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 사회를 바꾸는 것은 모두 마음을 얻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진현 기자 정재경 기자 최현배 기자 김지영 기자 김진수 기자

본보 박진현·정재경·최현배·김지영·김진수 기자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수상

신문·통신기획보도 ‘최우수’

신문편집부문 ‘우수상’

광주일보가 보도한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시리즈가 올해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구길용)가 선정한 신문·통신기획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1일 '2014 올해의 기자상' 16편을 발표했다.

광주일보 박진현 부국장·최현배 차장·김지영 차장·김진수 기자 등 네 명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을 주제로 지난 4월부터 근대 유적이나 빈 건물 등에 스토리텔링으로 생기를 불어 넣은 사례를 찾아 보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신문편집부문 우수상은 광주일보 정재경 부장이 순천드라마세트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드라마촬영과 관람객 소식을 '추억 되깁으며 향수 되살려봐'로 감각적으로 배치해 수상했다.

한편 신문·통신취재부문에는 무등일보의 '진일인사 이름이 학교명...부끄러운 의향 광주'기, 방송취재보도부문에는 KBS목포방송국의 '진도VTS 문제 취재 보도'가, 방송기획보도부문에는 KBS광주중국의 '섬의 선택, 다리의 두 얼굴'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